

장려상

래떼는 말이야



연합뉴스TV

홍정원 기자



24년 가을의 일입니다. 팀방에 링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단독] 000 사고 장면 CCTV 보니
<http://news.naver.com/...>

유명 정치인 딸 000씨의 음주사고 CCTV가 타사 단독 기사로 나왔다는 후배의 보고였습니다. 클릭해 열어보니 △△호텔을 바라보고 조금 왼쪽, 버스 정류장 바로 앞입니다. 단톡에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는지 알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길어집니다. 30분쯤 기다리니 답변이 올라옵니다.

-△△△호텔요.
-☆☆☆ 수습이 됐대요.
수습?-

이번엔 금세 줄줄이 대화가 이어집니다.

-네!
-대단하네요!
-경비 아저씨가 그냥 줬답니다 ㅋㅋ
-제가 한번 가 볼게요.

소위 물 먹은 상황이지만 다들 밝습니다. 물 먹은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저기는 제가 맡았던 구역입니다.

저는 13년차 기자이고, 현장보다는기자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인 사건팀 캡입니다. 오랜만에 나간 현장에서 거하게 물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저는'이 아니라 '저만' 물을 먹었다는 것이었죠.

○○○씨의 음주사고 단독기사가 쏟아지던 어느 토요일 저녁 일입니다. 사고 전 영상 단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냥 덮

어둘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다들 어디니?—

□□□에 가볼까?—

숫자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성당입니다ㅠㅠ

—저는 약속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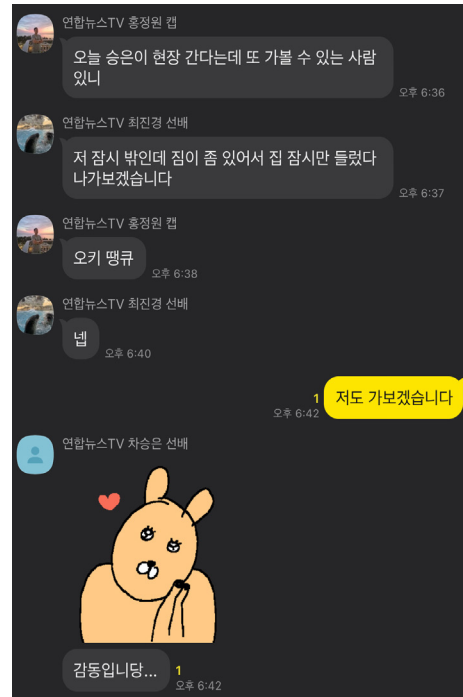
—죄송합니다ㅠㅠ

눈물이 난무하는 걸 보니 다들 달려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라도 가야겠습니다. 까짓것 CCTV야 저도 잘 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일단 □□□으로 갈게. 되는 사람은 연락 줘—

맹세코 오라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술선수범하는 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라인 때처럼 길바닥을 뛰며 보란듯이 설거지를 마치고, 더 나은 성과까지 보여주리라, 마음이 설렸습니다. 이때까지는 사고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 쉽게 원하는 화면을 건져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도 갈게요.



주말 호출임에도 나오겠다고 앞다퉂 손을 드는 후배들. 제공자(저도 가보겠습니다)는 2년 전 카톡이지만 캡처까지 해서 보관 중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는 30분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성당이라는 후배, 약속이 있다는 후배, 죄송하다는 후배들이 뛰어왔습니다. 미사를 제끼고, 약속을 바꾸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이태원에서 만난 후배들은 절대로, 결코 어떤 압박도 강요도 없이, 순수하게 자기 의지로, 열정에 불타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작도 전에 우리는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벽차올랐습니다.

2026 기자의 세상보기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뽀뽀삼거리. 팀장 홀로 물 먹은 곳.

저는 뽀뽀삼거리를 네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막내가 맡은 구역은 3/4분면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단독 보도한 음주 직후, 운전 전 영상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입니다. 설거지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구역이었죠.

“너는 내가 도와줄게. 가보자.”

막내는 수습교육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은 막내 중의 막내입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머릿속에는 자연스레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아까 그 장면은 저 가게 CCTV

일 것이고, 또 그 장면은 이쪽이겠구나 싶었죠.

“너는 저기로 가봐. 나는 여기랑 여기 가볼게.”

하지만 처음부터 난관이었습니다. 타사는 여기서 영상을 제공받은 것이 분명한데, 저한테는 안 된답니다. 사정해도 안 된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장사를 방해하지 말고 나가랍니다. 자주 있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당시 막내인 배규빈 기자가 취재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

다른 가게로 가면 됩니다. 또 봐둔 곳이 있으니까요. 자신있게 문을 열고 두 번째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저는 연합뉴스TV...”

외국인이 분명해 보이는 종업원이 반겨줍니다. 기자라고 밝히고 협조를 구하려는데 입이 안 열립니다. 우리말은 잘 못하는 눈치인데, 저는 영어를 더 못 합니다. 손짓으로 뭐라 하는 것이 메뉴를 물어보는 뉘앙스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다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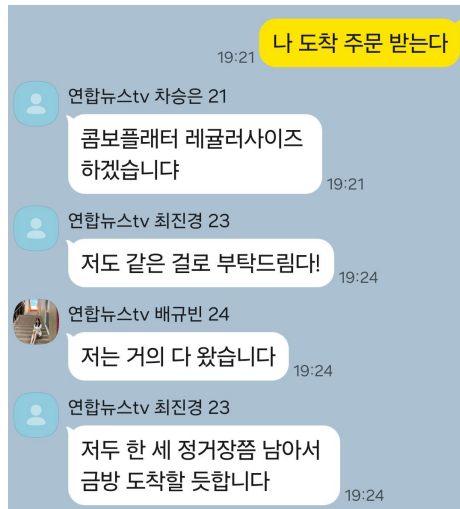
다시 오겠다고 우리말로 건네고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 나왔습니다.

“캡. 저 됐어요. 주신대요.”

막내가 저를 반겼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줬습니다. 이 골목에서는 더이상 할 일이 없을 만큼 완벽한 일처리였습니다. 막내는 저나 다른 후배를 도우러 가겠습니다. 그래.

저희 넷은 정말 열심히 골목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후회가 없을만큼 취재를 했

2026 기자의 세상보기



현장에서 팀장으로서 유일하게 잘한 일. 먼저 도착해 식사 주문받기. 속이 든든해야 일도 잘한다!

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더는 없을거야. 우리가 더 못 하면 누구도 못 하는 거야.”

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놓친 딱 한 장면, 맨 위에 링크 속 영상은 제가 맡은 1/4분면 구역에서 나왔습니다. 찍힌 장소는 △△△ 호텔 조금 왼쪽 버스정류장 앞 도로였고, 영상 출처는 △△△ 호텔입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확신했던 장소였고, 절대로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던 곳입니다.

☆☆☆ 수습기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 봤을 것입니다. 일단 가서 물어봤을 것이 분명

합니다.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아까 골목에서 막내 기자는 제게 우연히 만난 타사 동기 기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야, 여기 우리 캡이야. 여기까지 직접 오셨어.”

자랑하는 투였는데, 이제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날 거기 없어도 될 유일한 사람이 저였다는 것어요.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내 세울 것 하나 없이 연차만 먹었나 봅니다. 앞으로도 초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

연합뉴스TV 홍정원 기자